

■ 산크리스토폴과 치아파스의 향기를 찾아서

이 영 민

2009년 1월의 어느 겨울날, 오아하카(Oaxaca)를 출발한 산크리스토폴 데 라스카사스(San Cristóbal de las Casas, 이하 ‘산크리스토폴’ 이라고 약칭한다.) 행 야간 버스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치아파스(Chiapas) 주로 들어섰다. 구름들 사이로 낮게 깔린 안개 숲 위로 붉은색 기운을 흩뿌리며 아침 해가 스산한 모습으로 떠올랐다. 상상 속에서 그려 왔던 치아파스의 모습도 머릿속에 함께 차올랐다. 가슴도 가볍게 뛰고 있었다.

나는 마야 문명과 그 후예들을 보고 싶었다. 가난한 원주민들, 백인-메스티소-원주민으로 대별되는 인종의 사회적 구성, 식민제국주의의 유산, 마야 문화와 혼성 문화……. 원주민의 삶을 직접 보고 싶다는 욕망을 늘 가지고 있었다. 지구 저쪽에 펼쳐져 있을 아름다운 경관과 그 속에 살고 있을 아름다운 사람들을 막연하게 그리워했던 것 같다. 이들과 함께 떠오르는 인물……. 검은색 복면을 착용한 사파티스타(Zapartista) 운동의 지도자 마르코스 부사령관(Subcomandante)! 사파티스타 운동의 정식 명칭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 Ejército Zapatista de Liberación Nacional). 검은색 복면이라고? 지도자가 부사령관? 그럼 사령관이 누굴까. 10여 년 전, 그 복면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이 시대에도 살아 있는 유토피아를 향한 그 도전에 난 매료됐다. 생각의 흐름 속에서 <라쿠카라차>의 경쾌한 리듬이 넘실댄다. 바퀴벌레 같은 비참한 처지의 농민들, 실패한 토지개혁과 농민혁명, 내부적



그림 1. 그리할바 강 유역분지(중앙밸리 저지대)

식민화에 대한 저항, 반세계화, 식량안보를 넘어선 식량주권…….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는 치아파스 땅! 치아파스와 산크리스토발은 그렇게 내 마음 속 깊숙한 곳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치아파스의 주도 툭스틀라 구티에레스(Tuxtla Gutiérrez, 이하 ‘툭스틀라’로 약칭한다.)를 지난 버스는 떠오른 해를 뒤로 하고 갑자기 굴곡이 심한 산길로 들어선다. 해발고도 500미터 정도의 툭스틀라에서 해발고도 2,200미터의 산크리스토발까지 약 한 시간 동안 급경사의 능선을 타고 무려 1,700여 미터를 올라왔다. 능선 아래에 펼쳐진 그리할바 강(Río Grijalva)의 유역분지가 장쾌한 모습으로 눈에 들어왔다(그림 1). 그리고 이내 펼쳐지는 산크리스토발 고산 지형과 분지들이 변화무쌍한 치아파스의 자연환경을 잘 보여 준다(그림 2). 치아파스는 멕시코를 덮고 있는 시



그림 2. 산크리스토팔 고원지대(고지대)

에라마드레 산맥과 그 지맥의 남쪽 맨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치아파스 시에라마드레 산맥이라 불리는 높은 산지가 한가운데에 넓게 포진하고 있고, 그 산지의 곳곳에는 깊은 골짜기가 원시적인 모습을 간직한 채 펼쳐져 있다. 산크리스토팔은 그 산지의 고지대에, 톱스틀라는 산지 사이의 중앙계곡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저지대를 따라서는 그리할바 강과 우수마신타(Usumacinta) 강이 흘러 풍부한 수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치아파스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우수마신타 강을 따라 그 주변의 유역분지에는 라칸돈(Lacandon) 정글이라 부르는 열대우림이 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지형의 변화는 라틴아메리카 자연 지리의 가장 중요한 특색이라 할 수 있는 고도에 따른 수직적 기후 및 식생의 차이를 잘 보여 준다. 이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관한 지역적 지식에 정통한 원주민과 연대하여 EZLN 세력이 독



그림 3. 산크리스토발 분지

자적인 활동을 전개하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산크리스토발은 가장 높은 산지의 한가운데에 해발고도 2,200미터 내외의 분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대략 온화한 땅(Tierra templada)과 추운 땅(Tierra fría)에 걸치는 서늘한 기후 지역에 속하는 곳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이 일반적으로 밀도 높게 분포하는 곳도 바로 이런 기후 지역이다. 이 도시는 19세기 말까지 치아파스의 주도로 자리 잡아 산지와 정글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마야계 원주민의 교역 중심지 노릇을 했다. 지금은 주도가 해발고도 530미터의 저지대에 위치한 투스틀라로 옮겨가 있지만, 산크리스토발은 여전히 원주민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산크리스토발은 치아파스 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약 1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치아파스 주 전체 인구(약 430만 명)에 비하면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하지만 원주민의 중심지



그림 4. 산크리스토발 도시 경관

로서 오랫동안 자리 잡아 온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1994년 EZLN은 이 도시를 점령하면서 봉기의 횃불을 처음으로 들어 올렸다.

산간 분지의 조용한 도시 산크리스토발은 붉은색 기와가 얹힌 단층 혹은 이층짜리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그림 4).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초록 빛깔의 산지와 푸른 하늘을 부드럽게 수놓은 뭉게구름 속에 조그마한 시가지가 소담하게 앉아 있었다. 소위 ‘반군’ 들이 점령하여 ‘반군’ 활동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치아파스 하면 ‘반군’ 이 떠오르고, 그래서 막연하게 어둡고 소란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온 나에게 이 도시는 그저 평화로운 여느 도시의 분위기와 다를 게 없었다. 대체로 노란색과 붉은색 계통의 빛깔로 소박하게 치장된 외벽들은 따스한 느낌의 안정감을 준다. 하지만 오묘하게 섞인



그림 5. 산크리스토발 대성당과 소칼로 광장

붉은색 계열의 연하고 진한 유사색들 또한 은은하게 자극을 주어 마음을 일렁거리게 한다. 가장 중심에 있는 산크리스토발 대성당과 바로 앞 소칼로 광장을 휘감은 한낮의 밝은 햇살과 맑은 바람이 코끝을 애무한다(그림 5). 하지만 해 저문 다음 야간 나트륨등 조명 아래 드리난 성당 건물은 검은 하늘빛과 강렬한 명도대비를 이루며 치아파스의 치열했던 지난날과 그 잠재된 역동성을 과시하는 듯했다(그림 6).

버스 터미널 근처 숙소로부터 중심지 산크리스토발 교회까지 오백 미터 남짓 걸어가는 동안 세 곳의 성당을 만날 수 있었다. 흰색과 파스텔 톤으로 치장한 산타루시아 성당(Iglesia de Santa Lucía)은 소박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의 제단은 뾰족한 신고딕 양식으로 구성되어 제법 웅장한 기품을 풍긴다. 하지만 유럽풍 대성당의 신고딕 양식이 주는 위압적인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그



그림 6. 산크리스토타발 대성당의 밤 풍경

저 소박하고 정갈한 모습이 마음을 차분하게 한다. 흰색과 자줏빛 외관의 육중한 산프란시스코 성당(Iglesia de San Francisco)이 눈앞에 나타났다. 자줏빛의 진한 여운은 내부로까지 이어진다. 자그마한 내부 공간의 전면 전체와 측면의 여러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황금빛 장식들……. 보는 것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진다. 대성당의 규모가 주는 장엄함을 흉내 낸 걸까. 아니면 황금을 통해 그 장엄함을 만회하려는 것이었을까. 성당 앞 가판대에서 군 옥수수를 사서 한 입 물었다. 검게 그을린 군 옥수수의 빛깔 또한 황금빛이 아니던가. 입 안에서 느끼지는 황금빛 알갱이의 달콤함은 내 눈을 사로잡은 산프란시스코 성당 안의 황금빛 장식들보다 더 강렬하게 머릿속에 각인됐다. 원주민이 갈구한 건 황금빛 성당을 통한 구원이었을까, 한 조각 달콤한 옥수수였을까.

상념을 안고 다시 거리로 나선다. 크고 작은 음식점, 식료품



그림 7. 산크리스토발 거리

가게, 기념품 가게, 그리고 그 사이에 PC방 하나! 이 오지도 글로벌 네트워크의 한 결절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세계로 이어진 치아파스의 위상을 곰곰 상상해 본다. 메스티소와 원주민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들. 그 사이로 간간이 보이는 백인 관광객을 지나 거리를 걷는다. 눈앞에는 다시 웅장한 성당이 나타났다. 노란색 외벽과 자줏빛 선, 그리고 하얀색 문양으로 장식된 산크리스토발 대성당! 도시의 심장부에 있는 가장 큰 성당이다. 그 앞 소칼로 광장에는 한 가운데의 대형 십자가를 둘러싸고 여유로운 사람들로 넘쳐난다. 고색창연한 나무 대문을 열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역시 황금으로 찬란하게 장식된 정면에는 과달루페 성모가 성당 내부 전체를 응시하고 있고, 그 앞에 커다란 멕시코 국기가 꽂혀 있다. 과달루페 성모 앞에 경건하게 촛불을 점화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람들……. 영혼의 구원을 갈구하는 사



그림 8. 아이를 업은 마야 원주민 여인들

람들……. 성당은 지난날 치아파스 주민들의 삶의 구심점이었으며, 오늘날에도 구심점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런데 멕시코 국기는 뭘 뜻하는 걸까. 지역과 국가, 그리고 종교가 중첩되어 재현되는 현장에서 현실로 체현되는 주민들의 삶은 무엇이고 상상적으로 구성되는 주민들의 삶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 도시에서 원주민을 만나는 건 흔한 일이다. 대부분 초칠(Tzotzil) 족 출신인 여자들이 원주민 복장을 하고 거리를 돌아다

니며 민예품을 팔고 있다(그림 8). 검은색 치마, 인디고 바탕에 다채롭게 수놓은 솔, 들쳐 업거나 허리에 매단 아기, 짙은 갈색으로 그을린 피부, 일자로 땀아 내린 검은색 머리, 그리고 갈색 눈동자의 해맑은 미소! 독특한 원주민 복장은 이들을 메스티소와 뚜렷이 구별시킨다. 치마와 솔의 빛깔과 모양, 문양 등은 같은 종족 내에서도 출신지역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그들이 초칠어로 대화 나누는 것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자유롭고 활달해 보이기까지 했다. 멕시코시티에서 보았던 남루하고 생기없는 원주민(나우아틀 족) 걸인들과는 분명히 달라 보였다. 이들의 다름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분명 흥미로운 일이었다. 왜 그럴까. 이곳 원주민은 자신이 원주민임을 보여주는 걸 꺼려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러한 체현성은 주류 집단에 의해 차별의 근거로서 활용되지 않았을까.

원주민은 스페인 백인 세력이 식민지화의 주체로서 신대륙에 진입한 이후 새롭게 정의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의 산물이다. 멕시코에서 그리고 치아파스에서, 원주민이라는 인종 정체성은 누구에 의해, 왜,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는 걸까. 원주민의 인종적 위치성은 얼마 전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산크리스토발을 위시하여 치아파스의 여러 도시에서는 크리오요 백인 세력에 의해 사회적 차별을 위한 차이의 정치에 따라 생산된 원주민 정체성이, 역시 크리오요 백인 세력에 의해 생산되어 위계적 인종관계의 중간층을 형성하게 되는 메스티소 정체성과 최근 치열한 경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EZLN이 원주민과 그들의 마을을 포섭하며 운동을 전개해 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차별을 위한 차이의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단의 가시적 구별이 전제돼야 했을 것이다. 메스티소와 원주민



그림 9. 마야 원주민 촌로

은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피부색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통해 식별하는 게 쉽지 않다. 즉 인종 스펙트럼에서, 비록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같은 피를 나누고 있는 두 인종집단 간의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독립이후 메스티소 중심의 멕시코 민족주의에 의해 일종의 내부적 식민지로 포섭된 치아파스의 식민주의적 상황 속에서, 원주민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적어도 스스로 나서서 정체성을 표현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던 것이 EZLN의 봉기이후, 이러한 원주민 집단의 체현적 특징과 관련해 적어도 원주민 집단의 주체적 입장에서는 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체현적 특징을 더 이상 열등한 타자의 낙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

라 오히려 탈식민주의적 중심화의 표현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치아파스 주에서 원주민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것도 그러한 자긍심의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EZLN의 탈식민주의 정신이 치아파스 지역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온 건 분명한 것 같다.

치아파스 전체 인구의 인종별 구성을 보면, 메스티소가 55%, 소칠 족과 첼탈(Tzeltal) 족으로 대별되는 원주민이 40%를 차지한다. 물론 메스티소가 다수를 점하고 있긴 하나, 원주민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멕시코 내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다. 더군다나 치아파스의 마야 원주민은 주류문화와 혼성되는 과정에서도 고유한 문화전통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원주민 인구의 약 35%는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언어로만 의사소통을 한다. 멕시코와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혼혈 사회에서 혈통적으로 외모를 통해 원주민을 구별해 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원주민 구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어다. 원주민을 위한 정체성의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EZLN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다”라는 모토를 내세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ZLN이 원주민의 편에 서서, 원주민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언어의 고유성을 중시하고 또한 소통체계로서 언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과연 이들 원주민은 EZLN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 나가고 있는 걸까. 좀 더 깊숙이 그들의 삶을 느껴 보고자 산크리스토발에서 가까운 오벤틱(Oventic)을 찾았다. 산크리스토발에서 오벤틱으로 가는 한 시간 가량의 여정에는 초칠 족 내의 독특한 세부 종족집단으로 뚜렷이 분리되는 차물라(Chamula) 집단의 마을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부드러운 곡선의 구릉지를 따라 옥수수밭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그 사이사이에 가옥



그림 10. 차물라 마을

들이 넓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그림 10). 이곳의 계절도 비록 겨울이지만, 짙은 녹색의 숲과 나무들, 그리고 옅은 녹색으로 익어가는 작은 밭떼기들이 생명의 땅임을 소리쳐 외친다. 생명을 향한, 생명의 신을 향한 그들의 정성이 가로변에 소박하게 서 있는 작은 성당 그리고 야외에 세워진 키 큰 십자가에 담겨 있었다(그림 11, 12). 농촌 지역 원주민의 일상에서도 가톨릭 신앙과 그 경관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의 성당과는 말할 나위도 없고, 산크리스토탄 시내의 성당과도 사뭇 다르다. 황금으로 치장된 준엄한 모습의 내관도 아니고, 현란한 대형 그림이나 조각상도 찾아볼 수 없었다. 휘휘 늘어진 휘장과 액자에 박힌 작은 그림, 과달루페 성모상, 야생에서 꺾어 온 꽃 그리고 촛불……. 그것이 전부였다. 비바람에도 꺾이지 견뎌 냈을 굳건한 십자가가 갈색 나뭇가지로 감싸인 채, 생명의 초록 빛깔을 하고



그림 11. 차물라 지역 도로변 작은 성당



그림 12. 차물라 지역 도로변 십자가들

서 도로변에 박혀 있었다. 우연히 들른 산안드레스 라라인사르 (San Andrés Larráinzar) 마을 성당 안에서는 가톨릭 신앙과 전통 마야식 주술 신앙이 혼합된 독특한 의식을 볼 수 있었다. 메케한 냄새 가득한 자욱한 연기 속에서 장엄하게 거행된 의식을 과달루페 성모상이 자애로운 미소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럽식 가톨릭교와 마야식 전통 주술 신앙, 그리고 메스티소 과달루페 성모! 이들의 혼성적 결합은 치아파스를 치아파스로 만드는 독특한 문화 정체성임에 틀림없다.

치아파스 고산지역의 자연환경과 원주민 마을경관의 아름다움에 젖어 있는 동안 집 앞에서 벽돌 쌓는 아낙들의 모습이 한순간 눈에 들어온다. 집집마다 많고 적은 벽돌들이 쌓여 있다(그림 13). 이것도 세계화의 한 징표임을 듣게 된 순간 상상의 나래는 다시 하늘 저 너머의 세계로 확장됐다. 차몰라 지역의 약 30%의 가정에서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구성원이 미국에서 밀입국자 (undocumented)로 체류 중이다. 그들이 고향으로 보낸 돈은 그렇게 벽돌이 되어 새로운 집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쌓여 있는 벽돌의 규모는 그동안의 송금액과 운 좋게 견뎌낸 불법체류의 기간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계속 높이 쌓여가는 벽돌, 그리고 쌓이다가 멈춰 버린 벽돌 속에 배어 있는 ‘세계화의 하인’ 들의 고단한 노동의 흔적을 읽어 본다.

또 다른 자본주의 경제의 글로벌화의 흔적이 차몰라 농촌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빨간색 코카콜라 간판이 현지 공장의 전면 에 보무도 당당하게 서 있었다(그림 14). 마야 원주민과 코카콜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극단의 문화가 바로 여기 치아파스에서 만났다. 콜라는 원주민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마야 원주민의 전통 술과 콜라를 섞은 새로운 음료가 이들의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세계에서 일인당 콜라 소비량 1위 국가 멕시코! 이 통계에 접



그림 13. 집 앞에서 벽돌 쌓는 아낙들

했을 때 콜라가 타코나 버리토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눈앞에 나타난 코카콜라 공장 간판을 보면서 원주민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세계화(globalization)의 달콤한 맛이 그 배경이 되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세계화는 그렇게 치아파스 산골까지 깊숙이 들어와 원주민의 삶과 마을 경관을 바꿔 놓고 있었다.

사파티스타의 중심 마을 오벤틱(Oventic)에 도착했다. 도착 전에는 험악하고 긴장감 넘치는 반군 군사조직 본부를 상상했다. 그러나 이곳은 치아파스 전역에 퍼져 있는 사파티스타 소속 일반 농민들을 위한 다섯 개 주민 행정본부 중 하나였다. 허술한 철문 안쪽에 낮은 골짜기를 따라 목재 건물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사진으로만 보던 사파티스타들의 복면한 얼굴과 부리부리한 눈은



그림 14. 치아파스 산골의 코카콜라 공장

아주 강렬한 인상을 심겨 주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내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 철문을 지키고 있는 역시 복면을 한 사파티스타의 모습은, 그저 평범하고 남루하기까지 한, 오는 길에 자주 마주할 수 있었던 원주민 복장의 그 맑은 눈동자들이었다(그림 15, 16). 검은 복면이 사파티스타들의 상징이긴 하지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의 현지 주민들의 모습에서 복면은 추가된 정체성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그저 보통의 현지 주민들이자 원주민이었다. 일주일 간의 순회근무를 마치고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는 사파티스타 아낙들……. 철문을 나서면서 복면을 벗는다. 베일을 벗는 순간 갈색 피부와 갈색 눈동자가 환하게 나타났다. 산크리스토발 시내에서 차몰라 농촌지역에서 만났던 여느 순수한 원주민의 모습 그대로였다.

사파티스타의 등장은 치아파스가 당면한 문제들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의 세계화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94년 1월, NAFTA의 발효에 즈음해 산크



그림 15. 오벤텍의 여성 사파티스타



그림 16. 오벤텍의 남성 사파티스타

리스트발을 위시하여 치아파스 주의 네 도시에 진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된 EZLN의 혁명은, 분리 독립을 원하는 정치적 혁명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가난한 농민과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이들의 목표는 멕시코 정부의 전복을 통한 분리 독립과 수직적 권력관계의 구현이 아니다. 멕시코 정체성은 수용한 채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 따라서 수평적 권력관계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주민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이를 위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업 부문의 혁명이다. 라틴아메리카 식민지 시대의 잔재인 부재지주에 의한 대토지 사유제의 불합리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쟁이 여러 차례 계속됐다. 이들이 계승하고 있는 정신이, 비록 실패했지만 1910년대 에밀리오 사파타(Emilio Zapata)가 주도한 멕시코 농민혁명이라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농지의 개혁과 더불어 세계화에 따라 고조되고 있는 식량 위기의 문제를 지역 수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농업에서의 반세계화 투쟁도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식량안보라는 소극적 자구 전략에서 뛰어넘어 식량주권(food sovereignty)이라는 적극적 개념을 주조하고 추진하고 있다. 즉, 이들의 투쟁은 세계 대자본이 지역의 식량체계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는가를 관장하려는 지역 수준의 적극적 자구책이다. 오벤틱의 건물들 외벽에 가득 그려진 벽화는 사파티스타의 기본 정신과 구현 목표를 잘 드러낸다. 에밀리오 사파타, 체 게바라, 프리다 칼로의 얼굴이 보인다(그림 17). 일반 농민들의 모습들도 순수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처럼 예쁘게 그려져 있다. 그들에게 평등을 상징한다는 달팽이도 벽화의 그림이 되어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그림 17. 오벤틱의 건물 벽화

옥수수 낱알에 박힌 복면을 한 일반 농민들의 모습을 통해(그림 18), 이들과 옥수수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다. 땅과 작물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의 순수하고 소박한 혁명을 생각해 봤다.

오벤틱을 떠날 무렵 갑자기 비가 내렸다. 건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을 타고 올라온 무역풍은 습기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굵은 빗방울을 뿌렸다. 비 내린 그늘진 오후, 산골짜기를 돌고 돌아 도착한 소칠 족 원주민 마을 산이시드로(San Isidro de la Libertad)에서 향기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꽃 장식을 한 판초를 입은 남자와 악수를 나눈다. 벽면에 등 대고 나란히 앉은 갈색 피부의 꽃무늬 솔을 두른 아낙들과 눈인사를 나눈다. 호기심 어린 눈으



그림 18. 오벤틱의 옥수수 벽화

로 살그머니 주위를 맴도는 아이들에게 손을 건네 본다. 우리말, 영어, 스페인 어, 소칠 어로 이어지는 그들과의 소통은 화기애애했다. 짧은 미국 불법체류 경력을 가진 마을 이장이 마을 사람들에게 소칠 어로 통역을 한다. 귀를 쫑긋 세운 마을 사람들이 그의 통역을 경청하면서 말뚱말뚱한 눈망울로 우리를 쳐다보며 소리 죽여 이야기를 건넨다.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 아구스틴! 건네 준 볼펜을 들고 메모지 한가득 마을의 모습을 그렸다. 말끔한 흑백의 풍경화 한 폭이 똑딱 나타났다. 마침내 건물 안 화로 위에 놓인 투박한 솔단지에서 커피 물의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그림 19). 나이 든 한 아주머니가 커피를 잔에 따라 빵과 함께 건네고는 이내 검게 주름 잡힌 손등을 수줍게 오므린다(그림 20). 지금도 난 잊을 수 없다. 녹슨 검은색 커피 솔단지, 손바닥 한가득 전해 온 커피 잔의 따스한 감촉,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림 19. 산이시드로 마을의 커피솥



그림 20. 산이시드로 마을의 커피

감미로웠던 커피의 맛과 향기를! 그건 입으로 마시는 커피가 아니었다. 가슴으로 마셨던 가장 향기로운 커피였다. 그렇게 치아파스의 원주민 마을의 밤은 깊어 갔다.

이영민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학과 교수
